

테크노세미켄, 응용화학 소재개발 박차

일본 트리케미켄연구소와 합작법인 설립 ... 층간 절연물질 공급예정

반도체·LCD 소재기업인 테크노세미켄이 일본 특수정밀화학연구기업인 트리케미켄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응용화학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합작기업 테크노트리켄 설립에 관한 합작 계약서를 체결했다.

테크노세미켄은 합작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으로 테크노세미켄과 트리케미켄연구소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갖게 되며 양측이 차세대 화학소재 개발을 목표로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리케미켄연구소는 30여년 동안 반도체와 광섬유 분야 특수정밀화학 소재를 개발해온 기업으로 미국 인텔로부터 자본유치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노세미켄은 테크노트리켄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층간 절연물질의 국내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10>